한국사료협회‘ 1사1촌 운동 에 동참

강원도 평창군 응암마을과 자매결연

◀인사말을 하고 있는 한국사료협회 김정호 회장(왼쪽)과 마을주민 대표 이경로 이장(오른쪽).

▲ 자매결연패교환후 기념촬영.

▲ 기념품 증정 모습.(사료협회에서는 노래방기기와 기념 타올을 마을에서는 직접 재배한 감자를 선물함으로써 자매결연의정을나눴다.)

우리 협회(회장 김정호)는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‘ 1사1촌 운동 에 동참, 지난 7월 21일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응암리의 응암마을과 자매결연식을 갖고 앞으로 농촌일손돕기 등 도농교류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.

이날 결연식에서 김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“ 농촌은 마음의 고향이자 안식처 ”라고 말한 뒤“ 이는 농촌이 우리와 같은 정서가 메마른 도시민들이 늘 갈구하는 향수와 푸근한 정서를 채워주는 값진 존재라는 의미 ”임을 강조한 뒤“ 오늘 응암마을과 자매로서의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, 이제 응암마을은 우리 협회로서는 제2의 고향이 되겠다 ”고 말한 후“ 앞으로 응암마을에 좋은 일이나 궂은 일들은 함께 걱정하고 해결해 나아갈 것 ”임을 밝혔다.

▲ 행사가끝난후 기념촬영.

또 김회장은 앞으로“ 응암마을을 찾아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 나서는 한편 이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우선 구매 등 마을 발전을 위해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것 ”이라고 밝혔다.

이에 대해 응암리 이경도 이장은“ 오늘 응암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게 된 한국사료협회 식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”고 말한 뒤“ 우리 마을은 품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, 사료협회 식구들이 주말이나 휴가철 등을 이용해 부담없이 우리마을을 찾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 ”고 말했다.

한편 이날 자매결연식에는 사료협회 임직원과 마을주민, 권혁승 평창군수, 김만복 평창군농협지부장, 이양균 평창농협조합장 등 각계 유명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으며, 사료협회에서는 노래방기기와 기념타올을 마을에서는 직접 재배한 평창감자를 서로에게 자매결연 기념품으로 전달했다.